

대형 교회 숲 사이에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김종포 목사는 거제도에서 출생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와 침신대 목회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신학대학과 침례신학대학의 공동학위 과정 목회학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1985년 아름다운교회를 개척해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대형교회 숲 사이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옥한흠을 만난 세대와 안 만난 세대

이제 바야흐로 제자훈련 하는 인도자도 고(故) 옥한흠 목사와 직접 만나 제자훈련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 목회자와 역사 교과서 속 인물처럼 책이나 영상으로만 대면한 목회자로 나뉘게 됐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서 옥 목사와 한 번이라도 만나 이야기라도 나뉘 본 목회자는 행운아에 속한다. 반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목회자는 이제 책이나 입소문으로만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아름다운교회 김종포 목사는 옥한흠 목사를 만난 세대로서 제자훈련을 통한 목회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목회자다.

그는 올해 62세로, 지난 1985년 강남 끝자락인 명일동에 아름다운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안식년을 제외하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쉬어 본 적이 없는, 열정이 가득한 노 목회자다. 사실 제자훈련을 오래 해온 목회자 중에서는 50대 중후반을 넘으면서 제자훈련을 아예 내려놓거나 사역훈련까지 부교역자들에게 모두 위임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나 김종포 목사는 62세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무려 사역반을 5개나 인도할 정도로 제자훈련에 목회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목회자다.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안정적인 때가 바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하는 김종포 목사. 그는 어떻게 제자훈련의 광인(狂人)이 되었을까? 그가 개척한 아름다운교회에서의 제자훈련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다시 내 종이 돼라”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김종포 목사는 거제도가 고향이다. 100여 년 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린 시절 교회 분쟁을 경험했다. 하지만 일찍이 중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던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목회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가 들어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런 고민은 군대에 가서도 2년간 이어졌다.

그러다 그는 군대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남산에 있는 미8군중교수양관에서 있었던 군종사병집체교육을 받으면서 새벽에 테니스코트장을 거닐며 성경 말씀을 암송하던 중 “너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도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라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그때 소리를 지르듯 크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 숙소로 달려와서 큰 은혜의 체험을 하며 회개와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를 지금도 명확히 기억한다고 말하는 그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무아지경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 이후 다시 신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하느냐를 놓고 기도했지만 전혀 특별한 응답은 받지 못했다.

이에 신학교를 접고 이태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한 자매를 전도하다가 교제하게 됐고, 결국 그 자매와 결혼까지 하게 됐다. 당시 총각 집사로서 고등부 교사와 청년부 지도까지 겸했던 그는 신혼여행 첫날밤에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한 번 군대에서와 똑같은 무아지경의 은혜와 감격에 빠지는 체험을 했다.

일명 뜨거운 ‘불파’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 종이 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는 즉시 아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와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어찌 보면 신혼 첫날밤



막상 제자훈련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다. 특히 남자 제자훈련은 자꾸 공회전을 도는 기분이 들었다. 장년 제자훈련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회의감이 들었던 차에 바로 5기 CAL세미나가 찾아온 것이다.



다운교회가 있는 4층의 2/3 공간도 다 사용할 정도였다.

그때 아름다운교회에는 70여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명성교회와 공존하던 1년 반 동안은 정체현상에 빠졌다. 겨우 10명의 성도가 늘어 총 80명이 모이게 됐을 때, 명성교회가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동부 성전이 이사를 와 8개월을 3만 5천명과 함께 지냈다. 대형 교회가 번갈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름다운교회는 잘 버텨 냈다. 그 근간에는 제자훈련이 있었다는 것이 김 목사의 전언이다.

개척한 지 5년 흐른 1990년, 조금씩 부흥해 지금의 명성교회 인근에 작은 교회당을 마련한 아름다운교회는 주변의 불이정사라는 불당과 빌라 건물을 사서 허물고, 교회를 짓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2004년에야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된다. 10년이 더 지났지만, 아름다운교회는 지금도 그 이름처럼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에 아내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와 함께 재 소명을 받은 그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다시 신학교에 복학했다.

당시 그의 동기들은 모두 목회자가 된 후였다.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신학교까지 매일 고속버스로 통학하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태원에서 사업을 계속 했던 그는 나중에는 믿음 좋은 직원과 아내에게 사업을 맡기고, 공부에 전념했다. 그리고 1983년 신학교 입학한 지 10년 만에 졸업을 했다. 주일에는 방배동 삼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던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형 교회 숲 속에 개척된 아름다운교회

결국 김종포 목사는 1985년 아내와 어머니, 누이 등 4명과 함께 명일동에 있는 종합상사 건물 4층에 아름다운교회를 개척했다. 김 목사는 당시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삼호교회 교인 중 몇 명이 그가 개척한 교회로 따라오려는 것을 적극 만류했다. 또한, 형제나 사촌 친척들이 오는 것도 만류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삼호교회와도 멀리 떨어진 강남 끝자락인 명일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매일 아내와 함께 아파트 전도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아름다운교회가 세든 건물 4층은 안식교회와 여호와의증인도 입주해 있었다. 개척 3년차에는 그 유명한 명성교회도 합류하게 됐다. 당시 명성교회는 급성장 중이였기에 재건축을 위해 지하부터 5층까지를 다 사용하고, 아름

가슴이 뻥 뚫렸던 5기 CAL세미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제자훈련 덕분이었다. 심지어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주변 목회자들도 “아름다운교회는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다.

심지어 명성교회가 대형 교회로 급부상하자 반경 1km 내에 있던 100여 개의 교회 중 20개 교회만 남고, 나머지 80개 교회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100개 교회 중에서도 아름다운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다. 그런 교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자훈련밖에 없었다고 김 목사는 재차 강조한다.

사실 김 목사는 신학교 시절부터 제자훈련에 매료됐다. 신학교 1학년 때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스태프로 훈련을 받

았는데, 네비게이트선교회가 스태프 훈련을 담당했다. 그때 김 목사는 ‘양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네비게이트맨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김 목사는 그 뒤 네비게이트선교회, CCC, 조이선교회 등의 교재들을 구입해 읽기 시작했다.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삼호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했고, 마침 삼호교회 집회 강사로 초청돼 온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매료돼 그때부터 옥 목사를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가 『평신도를 깨운다』가 출간되자 여러 번 읽게 됐고, 1986년 CAL세미나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개척 교회 목회를 하던 시기라 당시 CAL세미나 등록금 28만 원이 없어서 1~3기 때는 참가하지 못했다. 4기 때는 등록금을 만들어 등록하기 위해 사랑의교회 교육관으로 부지런히 뛰어갔지만, 9시부터 등록인데도 불구하고 8시 30분에 이미 마감이 끝나기도 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등록마감을 하지만, 그전에는 전화로 등록마감을 했고, 초기에는 직접 사랑의교회로 등록하러 오는 참가자들로 인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시절이었다. 이후 1988년 5기 CAL세미나 때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6시에 달려갔는데, 이미 2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운 좋게 등록을 했고, 5기 CAL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었다.

김 목사는 “CAL세미나에 참가하자 한 마디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다.

이미 신학교 시절 박영철 교수로부터 제자훈련을 소개받았었고, 삼호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에서도 폐 성과가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김 목사였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 2년 정도 지나 시작한 1기 남녀 제자훈련이 뼈 거저러웠다.

막상 제자훈련을 하려니 너무 어려웠

다. 특히 남자 제자훈련은 자꾸 공회전을 도는 기분이 들었다. 출석은 잘하는데 나눔은 걸돌았고, 결국 남자반은 수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 여자반은 그런대로 따라와 1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찝찝했던 차였다. 장년 제자훈련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회의감이 들었던 차에 바로 5기 CAL세미나가 찾아온 것이다.

옥한흠 목사의 훈련 모습 보고, 꿈을 품다

그런데 CAL세미나 내내 옥한흠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 들수록 방법론이 아닌 제자훈련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귀에 들어왔다. 제자훈련 교재를 다루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오직 목회 철학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봤다. 김 목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목회 철학이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참가자들이 사랑의교회를 탐방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옥한흠 목사가 다락방 순장들을 인도하는 모습이나 훈련

생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김 목사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저거야, 제자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속으로 소리쳤다.

사실 옥한흠 목사가 훈련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질문을 하나 던지면 훈련생들의 기가 막힌 깨달음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것도 자기 오픈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남자들의 입에서 생생한 은혜의 말씀들이 쏟아지니, 자신이 아름다운교회에서 했던 남자 제자반과 많이 비교됐다. 김 목사는 ‘무슨 희생을 치루더라도, 제자훈련을 해서 저 경지에까지 도달하고 싶다’는 꿈을 이때부터 품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CAL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는 아름다운교회의 모든 훈련시스템을 사랑의교회식으로 바꿨다. 구역 소그룹 체제는 다락방 소그룹 체제로 바꾸고, 구역장도 순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자훈련 교재도 네비게이트에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교재로 모두 바꿨다.





아름다움교회 제자훈련은 그동안 시간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계속 진행해 왔다. 1과를 2주 동안 훈련할 때도 있었으며,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생들이 제자로서 완성될 때까지 훈련을 해왔다.

를 미룬 것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완의 상태로 머물게 됐다. 김 목사의 제자훈련 장인정신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좀 더 보완해 수료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수료식을 갖지 못해 지금도 1, 2기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 수료식도 못했죠”라고 김 목사에게 농담을 걸기도 한다. 그때 1, 2기 남성들이 지금은 모두 이 교회 장로들로서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됐다. 그래서 매년 제자훈련 수료식 때마다 이런 농담을 김 목사에게 던지는 것이

다. 그래서 김 목사는 수료식을 못한 1, 2기생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삶>이라는 교재로 따로 공부도 했고, 수료식도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모두 멋쩍어해서 아직도 수료식을 못하고 있다. 김 목사는 <최선의 삶>을 사역훈련 이후 코스로 하면 좋다고 권면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제시한 1년의 훈련 시간을 고수해 1년씩 훈련하기로 했다. 이유는 성도들이 증가하면서 훈련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사역훈련 기간이 길어지자,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사역훈련으로 곧바로 연결이 안 돼 본의 아니게 기다리는 수료생들이 생긴 것이다.

또한 65세 조기 은퇴를 선언한 김종포 목사의 은퇴가 가까워지자, 성도들이 더 늦기 전에 담임목사에게 사역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겼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제제자훈련원의 매뉴얼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목자의 헌신도가 높은 가정교회로의 전환

김 목사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 훈련의 수고가 많이 들다 보니,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까지 마친 순장의 헌신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그는 “수료생들이 저 정도만 헌신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 자신이 목표로 했던 평신도의 사역자화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조력자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고

제자, 완성될 때까지 훈련했다!

이후 김종포 목사는 30년 목회인생에서 안식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제자훈련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여자는 25기가 진행 중이고, 남자는 15기까지 수료했다. 제자훈련·사역훈련 수료생은 총 409명에 이른다.

사실 아름다움교회의 수료 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 보통 사랑의교회식 제자훈련 기간은 2월에 시작해 12월 초에 수료식을 하고 끝난다. 그러나 아름다움교회 제자훈련은 그동안 시간을 가리지 않고 훈련을 계속 진행해 왔다. 1과를 2주 동안 훈련할 때도 있었으며,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생들이 제자로서 완성될 때까지 훈련을 해왔다.

이쯤 되면 훈련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교회 제자훈련 수료생들은 오히려 “더 하고 싶다”, “수료가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다. 김 목사는 “국제제자훈련원의 훈련 원칙에는 벗어난 방법이었지만 탁월하지 않은 평범한 리더의 훈련은 시간 싸움이 된다”며 “더 많은 시간을 훈련생들과 함께 놀아야 제자로서 조금이나마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겸손해 했다.

사실 김종포 목사의 처음 남자 1, 2기 제자반의 경우, 진장에 마쳤으나 아직도 수료식을 못하고 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방학 이후 조금만 더 훈련 하면 수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완성도가 마음에 차지 않아 수료

당시 훈련받은 평신도의 한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지고, 같은 침례교 교단인 휴스턴 서울 교회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 소그룹을 아름다운교회에 도입했다. 다락방을 가정교회 소그룹 형태의 목장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헌신도를 높이려면 소그룹 리더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김 목사가 판단하기에 가장 완벽한 작은 교회였다. 가정교회 리더가 직접 영혼 구원을 위해 VIP(전도대상자)를 초대해 배가 증식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아름다운교회 목장 리더 부부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목장을 통해 교회에 정착하는 새신자의 비율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정착하는 비율보다도 높아졌다.

현재 아름다운교회 목장 수는 70여 개다. 결론적으로 김 목사는 “가정교회 체제로 소그룹을 전환한 뒤에 소그룹 리더들의 헌신도가 높아졌고, 여성중심의 성경공부 다락방에서 남녀중심의 영혼구원 목장으로 변화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부부가 함께 목장의 리더가 되다 보니 남성들의 참여가 증가했고, 순원들이 함께 밥을 먹고 가족들이 모두 모이다 보니 결속력과 친밀감이 배가 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목장모임은 대부분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까지도 모일 정도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부담감이 없다 보니 서로가 헤어지기가 싫어서 모임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김종포 목사는 “저는 대형 교회를 꿈꿔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건축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개척 후 5년 만에 교회건물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목회원칙 중 하나가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을 잘 안 받는 것인데, 새신자를 향한 마음의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장의 마인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리더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자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멘토링 맨투맨, 제자훈련 전 필수코스

사실 수년 전 김종포 목사는 독일의 자연적 교회성장 프로그램을 아름다운교회에서 테스트했었다. 그런데 아름다운교회가 가장 낮게 나온 게 전도였다. 한 명 한 명 전도해 오는 비율이 15%로 매년 꾸준했지만 새신자는 40%, 기신자는 60%나 됐다. 그래서 기신자 비율을 줄이는 게 고민이었다.

교회 전도훈련으로 목장 VIP 초청잔치를 1년에 두 번 개



새신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아름다운교회는 이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맨투맨’ 과정을 교회의 양육프로그램 중 필수코스로 진행하고 있다.

삼호교회 부목사 시절 김 목사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 주면 그가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멘토링을 했는데, 그가 신학교에도 가고 큰 변화를 일으키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재미에 흠뻑 빠졌다. 이때부터 김 목사는 개척하더라도 한사람 목회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솔직히 김 목사는 생전 옥한흠 목사를 찾아가 일대일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옥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기에 바쁜데, 그렇게 하다가는 죽어요, 죽어”라고 만류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대형 교회 담임인 옥 목사와 개척 교회 담임인 자신과는 처지가 다르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개척 초기였기에 제자훈련 1개 그룹을 인도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김 목사는 개척 교회 목회자일수록 일대일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내와 함께 이 일에 매달렸다.

일대일로 전도하고 멘토링을 해주니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나중에 제자훈련생을 뽑을 때도 수월했다. 일대일로 8주 동안 매주 만나 구원, 확신, 성장, 교회, 경건, 헌신 등을 다루다 보면, 어느새 제자훈련 받을 준비가 된 성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특히 가정교회 목장 소그룹으로 전환한 뒤, 목장 모임을 통한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률이 높아지자, 이들을 일대일로 멘토링할 훈련받은 리더도 50여 명이나 배출했다. 그래서 새신



맨투맨 멘토링을 통해 8주 동안 매주 만나
구원, 확신, 성장, 교회, 경건, 헌신 등을 다루다 보면, 어느새
제자훈련 받을 준비가 된 성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자가 들어오면, 목장의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된 리더가 두 달간 멘토링을 해도 됐다.

그가 이렇게 멘토링과 제자훈련을 연결하게 된 계기는 멘토링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자신이 이미 일대일로 사람을 세우는 일 즉, 멘토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부르시지 않았고, 한 명 한 명 부르셨는데, ‘이것이 멘토링이구나’ 하는 깊은 도전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이 한 사람을 위해 3일 금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상자의 아파트 단지를 자동차로 수없이 돌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맨투맨으로 멘토링을 하게 되는 열정의 평신도 리더들이 됐다. 두 달 간 그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평생 친구가 되고, 영적 동역자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김 목사는 “작은 교회, 개척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려면 능숙하지 못해 실패하곤 한다”며 “그런 면에서 멘토링 맨투맨은 일대일로 관계를 다진 후, 좋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고 제자훈련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를 개척해주는 교회

이어 김 목사는 “저는 그릇이 작습니다. 현재 장년 900명, 아이들 400명 등 총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한 부교역자들을 담임목사로 내보면서 교회를 개척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8개 교회 밖에 안됐는데, 아름다운교회 성도들이 몇 년씩 작정하고 개척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한다.

아름다운교회는 일명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표방한다. 아직 한국 교회 안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역 중 하나를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 교회 훈련 수료생들 사이에는 개척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도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부교역자가 개척 교회 담임목사가 되면 훈련 수료생들과 함께 파송예배를 드린다. 많게는 40여 명에서 적게는 20여 명씩 개척 교회에 파송한다. 그 교회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정착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 됐든 아름다운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번은 개척 교회 섬김 파송을 받게 된다. 1년, 2년, 3년, 장기체류 등 기간은 본인이 정한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일꾼도 보내지만, 건물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김종포 목사는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아름다운교회는 큰 교회가 아닌 많은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8개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목회자의 성숙을 멈추지 않게 한다

김 목사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할 때 얻는 유익으로 “나 자신의 성숙이 멈추지 않게 된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목회를 하면, 성장이 멈추기 쉽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하면 마음이 늙지 않고 새로워진다.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당신들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내가 자라고 있고, 당신들이 무언(無言)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준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김 목사는 월요일에 침신대에서 멘토링 강의를 하고, 화요일부터는 사역훈련 5개 반을 인도했다. 처음에는



7개 반으로 시작했다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2개 반을 합반해 5개 사역반을 인도했다. 제자반 인원은 7~8명, 사역반 인원은 8~15명이다. 다른 교회 사역반 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한 기수가 1년 단위로 딱 수료를 한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김 목사는 “은퇴를 하면 설교를 하지 않는 것에는 미련이 없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바로 제자훈련 하는 때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은퇴를 해도 제자훈련만큼은 계속하고 싶다”고 제자훈련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그래서 62세가 되는 올해도 그는 사역훈련의 현장 속에 있다. 김 목사가 사역반을 계속 인도하는 이유는 제자훈련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는 명성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라는 대형 교회의 숲 사이에서도 고통 없이 잘 자란 아름다운교회가 감사할 따름이다. 그는 어린 시절 모 교회가 많이 다투다 보니, “나는 싸우지 않는 교회면 족하다. 싸우면 도망갈 것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천명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아름다운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얼굴 한번 붉히거나 다투는 교인들이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교인들은 아름다운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다. 매년 아름다운교회는 이름을 쓴 설문조사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각각 하는데, 어느 정도 교회에 만족하는지, 목사의 설교, 행정, 성품 등에 각각 체크하도록 한다. 결과는 매번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제자훈련을 받은 이 신 안수집사는 “명성교회 새벽기도회를 다니며 7년간 은혜받았지만 허전함이 많아 아내와 함께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자고 결심하고, 아름다운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단단하고 제자훈련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혜정 집사는 “아름다운교회가 첫 교회인데, 1년마다 목회계획서를 공개할 때 선교에 80%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힘든 길

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다그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다”고 덧붙였다.

제자훈련 실패론에 대한 조언

김종포 목사는 이제 제자훈련은 실패했다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 제자훈련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일갈한다. 그는 그나마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이 있었기에 이 정도라도 된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의 실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제자훈련을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이란다.

제자훈련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목회의 근본’이라고 못 박는다. 제자훈련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안 하셨다면 뭘 하셨을까?”라고 반문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력한, 열심 있는 제자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목사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성령의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며 “성령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 하심 등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의 영향력이 극소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30년 전 옥한흠 목사가 특징만 다를 뿐 탁월한 제자훈련 교재를 보급했다기보다는, 그가 성령맨이었기에 제자훈련을 확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옥한흠 목사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기에 가르치는 것 이상의 감동이 있었고,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무릎 치게 한 것이며, 성령과 씨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영적 성숙과 변화가 오래 지속돼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이같이 대형 교회 숲 사이에서도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켜낸 아름다운교회 김종포 목사의 조용하지만 울림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쓴소리와 그의 진실된 사역이 한국 교회 내에 성령 충만한 제자훈련으로 다시 한 번 웅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은진 기자〉

